

글로벌 현장학습에 학점·취업까지...

대학생 500명 해외서 실습한다

#.우송정보대 글로벌명품조리과를 졸업한 김모 씨는 독일 뮌헨의 5성급 호텔 '바이어리셔 호프' 내 레스토랑 세미셰프로 취업하는데 성공했다. 김 씨는 재학 중 이 호텔에서 6개월간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경북대 학생 5명도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일본 도쿄 소재 도쿠슈카이이리그룹 병원에 취업이 확정됐다.



우송정보대 글로벌명품조리과 졸업생 김동우 씨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독일 뮌헨의 5성급 호텔 '바이어리셔 호프' 내 레스토랑에 세미셰프로 취업하는데 성공했다. /우송정보대

올해 대학생 500명이 4~6개월간 해외에서 전공과 관련한 현장학습에 참여해 학점도 받고 취업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한 학기(4~6개월) 동안 전공과 연계된 해외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해외 체류 기간중에도 학점 이수 가능성이 학생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 참가 학생들은 국고 지원을 받아 해외 현장실습에 따른 항공료와 연수비, 체제비 일부를 290만원~8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권역별, 기준·저소득층 추가 지원 등이 반영돼 결정된다. 최종 지원금은 대학 대응투자(일반대 50%, 전문대 30% 이상)가 합산돼 정해진다.

올해는 일반대 20개교 180명과 전문대 65개교 1040명 등 총 1220명이 신청했고 일반대 100명(19개교), 전문대 400명(57개교) 등 총 500명 선발인원이 확정됐다. 선발 규모는 대학별 사전 신청을 받아 적정 인원을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전문대교협
4~6개월간 전공 연계 현장학습
체제비등 최대 800만원 지원
참가자 중 해외취업 비율 늘어
진로·취업 설계 등 사후관리도

최종 참가자 선발은 각 대학별 선발 일정 따라 내달 첫째 주 완료될 예정이며, 취약계층 학생 30%가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해외 파견을 위한 기초적인 어학교육과 안전교육, 파견국가 관련 정보 제공 등 3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받은 뒤 7월부터 어학연수나 현장실습으로 해외에 파견된다. 해외 연수 이후 진로 설계와 국내의 취업지원 사업과 연계돼 사후관리도 받는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전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외취업 활성화 성과가 나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반대

학생 10명이 실습기관 등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 취업조사에 따르면, 참가자 중 취업자 대비 해외 취업자 비율은 2015년 6.6%, 2016년 9.5%, 2017년 19.9% 등 해외취업 비율이 크게 증가 추세다.

올해부터는 해외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학생이 파견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사업수료를 인정하고, 참가대학이 해외 창업 기관과 연계할 경우에는 우대 선발 규정을 마련했다.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대학생들이 국제화된 사회에 진출하기 전 어학·해외경험 등 국제화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학생 개인과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자유로이 세계 무대를 누릴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기업 10곳 중 7곳 "주 52시간제 사각지대"

중견기업 > 영세기업 > 대기업 순

기업 10곳 중 7곳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에 속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존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이던 운송업 등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인크루트가 기업 27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직 중인 기업(또는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사각지대라고 여기십니까?'라는 질문에 48%가 '약간 그렇다', 26%는 '매우 그렇다'고 답해 총 74%의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렇다'고 답한 기업의 규모를 보면 대기업(64%)보다 영세기업(70%), 중견기업(86%)이 많아 중소·중견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업종은 '외식·부식·음료'(89%), '문화·여가·생활', '교육·강사'(각 82%), '디자인·미디어'(77%) 순으로 나타났다. 노선 버스사업이 포함된 '생산·건설·운송'(71%)이 그 뒤를 이었다.

/한용수 기자

취가·삼일절... 구직난 담긴 씁쓸한 신조어

신조어로 본 2019년 취업시장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침체를 이어가는 가운데 취업시장의 체감온도 역시 냉랭하다. 취업대란을 겪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신조어들도 새롭게 등장해 공감을 얻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신조어를 통해 최근 취업시장 동향을 살펴본다.

취가

한동안 취업 대신 결혼을 선택한 여성을 지칭해 '취집'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최근에는 취업 대신 장가를 간다는 의미의 '취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젊은 남성 층을 중심으로 힘든 취업 대신 살림을 배워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페이스펙

페이스(Face)+스펙(spec)의 합성어로 외모도 스펙이라는 의미다. 학점, 자격증 등 다양한 스펙을 쌓아도 외모가 좋지 않으면 탈락하거나 반대로 스펙은 다소 나더라도 외모가 뛰어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다. 이로 인해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지원서 사진을 포토샵으로 수정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고, 취업성형도 성행하고 있다.

엠커브 현상

여성이 2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다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사이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다시 재취업을 하는 현상을 '엠커브(M-Curve)'라고 한다. 취업률의 변화 추이가 영문 M자를 닮아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러한 경력단절 현상이 고착되는 사회구조의 현실을 반영한다.

삼일절

극심한 취업난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취업준비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덩달아 구직자는 물론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이 선호하는 적정 연령이 있다. '삼일절'은 이런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로 31세까지 취업을 못하면 절대 취업을 못한다는 의미로 씁쓸한 현실을 반영한다. /한용수 기자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개시

내달 13일 18시까지 신청 접수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만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0일 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고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단, 구제 신청 시 재학기간동안 1회 인정된다.

1차 신청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돼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소득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

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학교 성적 B학점(80점) 이상,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지난해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다.

기초·차상위 계층 바로 위인 1~3구간(기준중위소득비율 70% 이내) 학생들은 'C학점 경계제'를 2회 적용해 이미 1회 적용받았다면 한 번 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국가장학금(I 유형)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 금액은 3구간까지 520만원,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한용수 기자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38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정부 포상 전수식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두번째 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수상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가 소식

한성대 '2019년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 선정

한성대학교는 암호동아리 퀴즈 앤트 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한국암호포럼이 주최하고 국가정보원이 후원하는 '2019년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은 대학의 암호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우수 암호 인력 양성 기반 조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 암호동

아리는 한성대 퀴즈 앤트를 비롯하여 총 8개며, 사업에 선정된 동아리는 연구 활동비 300만원과 포럼 주관 암호교육 및 워크숍 무료 참여 등의 교육 기회를 지원받는다.

2018년 개설된 퀴즈 앤트는 컴퓨터 보안 관련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동아리다. IT융합공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4명, 컴퓨터공학부 학부생 3명 및 사이버보안트랙 학부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명대 박물관 '실크로드 따라 떠나는 도자 체험 여행 II'

상명대학교는 교내 박물관이 지난해에 이어 '실크로드를 따라 떠나는 도자 체험 여행 II'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19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것이다. 대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자원을 통해 지역 사회 문화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의 도자기를 문화자원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교육과 체험, 전시를 한번에 경험할 수 있는 '기초-도자 이야기와 포셀린 프린팅'과 '심화-도자 이야기와 포셀린 페인팅', 동서양 자기 역사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으로 꾸며지는 '동서 도자 교류 역사 탐험' 세 가지로 구성된다. /한용수 기자